

21세기를 바라보며 세계의 중앙으로 나아가는 중앙대학교

김민하
중앙대 총장



1. 연혁

1) 창학 이념

‘의에 죽고, 참에 살자’라는 교훈 아래 존귀한 인격적 존재로서의 인격 도야, 만유에 부과된 근본이법으로서의 진리 탐구를 통한 참다운 삶과 정의 구현, 인간적 의무·숙명·지향으로서의 자유사상 터득과 실현을 창학 정신으로 삼고 있다.

2) 교육 목표

중앙대학교는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첨단 학술의 이론과 그 광범위

하고 정치한 응용방법을 교수·연구하며, 사회 각 분야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함을 교육 목표로 한다.

3) 발자취

1918년, 일제 침략기의 암울한 상황 속에서 민족의 장래를 내다본 한 여성 선각자에 의해 소중히 설립된 중앙대학교는 ‘의와 참’으로 대표되는 창학 이념 구현과 교육구국의 신념으로 일관해 온 전통의 민족사학이다. 중앙대학교의 시작은 서울 종로구 인사동 중앙교회에서 1918년 4월 중앙유치원을 창설한 데서 기인한다. 그 후 1933년 34세의 임영신 선생이 인수하여 1937년부터 흑석동에 석조교사를 건축, ‘영신관’을

완공하여 이곳으로 학교를 이전하였고 오늘날 대중양의 터를 마련하였으나, 1944년 일제에 의하여 폐쇄되었다. '53년 문리과·법정·경상·약학 대학의 4개 대학 9개 학과 및 대학원을 설치하여 종합대학으로 승격되었다. '68년 계열화에 의한 교육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8개 단과대학으로 개편하였고 1971년 의과대학을 신설하여 명실상부한 종합대학을 이루었다. 1972년 공과대학을 설치하고 문과대학에 자연과학의 기초분야를 합쳐 문리과대학을 두고, 서라벌예술대학을 합병하여 예술대학으로 개편하였다. '80년 안성에 가정학관과 제1차 기숙사 및 학생회관을 준공하였다. 이를 시발로 여러 건물들이 신축 및 증축되고 외국어교육관, 원형관이 완공되어 현대적인 면모를 갖추었으며, 안성의 제2캠퍼스에 7개 단과대학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제2캠퍼스에 대한 무리한 교육시설 확충사업은 대학운영 전반에 걸쳐 재정적인 어려움을 주게 되었다. '87년 재일 동포 김희수 박사가 민족이 발전하려면 교육을 통해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재단을 인수,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본교에서는 21세기 대응전략으로서의 장·단기 대학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미래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가운데 대학의 내적 충실도와 외적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시켜 2천년대 한국을 대표하는 민족·민주·선진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배가시키고 있다. 최근에는 첨단 학과와 정보산업대학원, 의약식품대학원, 예술대학원, 국제대학원의 신설 등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기반을 착실히 다져 '97년 1월 현재 건학 79주년을 맞은 본교는 유서 깊은 한강변 흑석동 제1캠퍼스와 전원도시 안성

에 위치한 제2캠퍼스에 첨단 교육시설과 쾌적한 면학 환경을 조성하고 1개 대학원 11개 전문대학원, 16개 단과대학에 8개 학부 및 64개 학과를 설치, 대학의 본질적 기능인 교육·연구·봉사의 실천과 질적인 수준 향상에 전념하고 있다.

2. 현 황

1) 대학 및 대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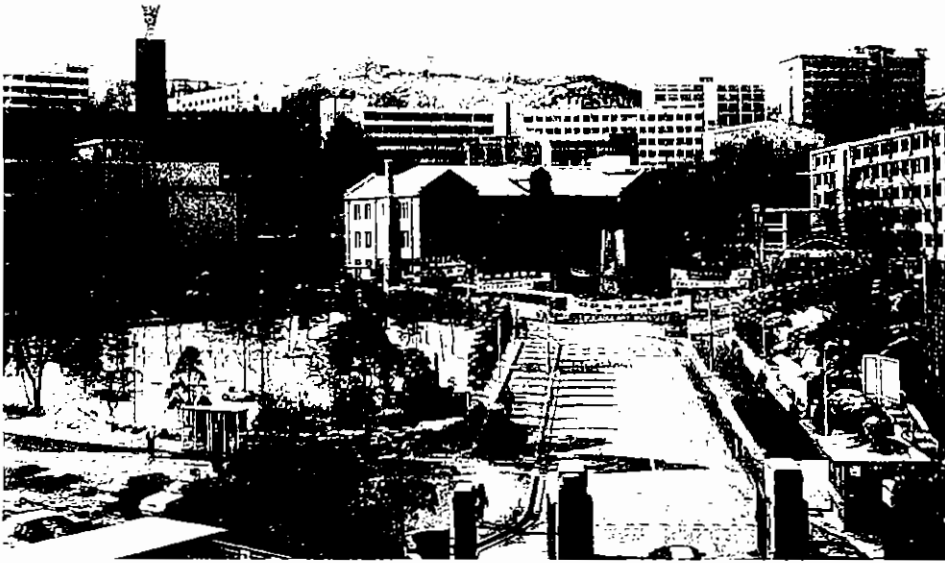
현재 중앙대에는 제1캠퍼스에 문과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사범대학, 법과대학, 정경대학, 경영대학, 약학대학,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있으며, 제2캠퍼스에 산업대학, 예술대학, 외국어대학, 사회과학대학, 가정대학, 음악대학, 건설대학을 두고 있다.

또한 대학원 체계를 강화하여 현재 일반대학원을 비롯하여 사회개발대학원, 국제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 신문방송대학원, 건설대학원, 행정대학원, 산업경영대학원, 정보산업대학원, 의약식품대학원, 예술대학원, 국제대학원 등 총 12개의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다.

2) 부속기관

① 도서관

서울 캠퍼스 중심에 위치한 제1캠퍼스 도서관은 3천 5백 평의 시계탑 건물에 2천여 석의 열람석과 64만여 권의 장서를 갖추었다. 참고열람실, 정기간행물실 및 완전개가식 동양서 열람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신 정보검색망인 DIALOG/BRS 시스템과 마이크로필름 리더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현대적 감각의 조형미와 기능이 조화된 제2캠퍼스 도서관은 5천 2백여 평의 규모



▲ 중앙대학교는 세계 속에 우뚝 선 민족·민주·선진 대학 건설을 위하여 오늘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에 20만여 권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는 완전 개가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부스형 개인열람실을 포함한 2천 2백여 석의 일반열람실과 도서분실 방지를 위한 전자감응장치 및 최신 정보검색망인 DIALOG/BRS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동 건물 내에 5백 20석의 시청각 자료센터와 민속박물관 외 각종 편의시설이 설치된 최신형 도서관이다.

특히 '95년에 도서관 정보시스템 'CALIS'가 개통됨으로써 제1,2캠퍼스가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중심으로 도서관의 모든 기능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고, 해외 학술 데이터뱅크와 국내의 다른 대학 도서관 데이터베이스를 온라인으로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완비하게 되었다.

② 전산센터

현대 대학의 또다른 심장부인 본교 전산센터는 국내 대학 최초로 IBM 3090 150J

V/F 슈퍼컴퓨터를 도입하고 슈퍼컴연구소 설치, 국내 대학 최초로 실시한 컴퓨터과목의 1학년 필수이수제, 학생실습용 PC의 다량구입과 학사행정의 온라인화, 교육전산망 가입에 의한 인터넷 서비스 등 컴퓨터를 이용한 다양한 교육지원 체제를 완벽하게 갖추게 되었다. '95년 10월 국내 최초로 시도하는 학생과 총장의 쌍방간 대화방 설치, 재택수업, 가상도서관,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전자우편 등 중앙인을 위한 '사이버 캠퍼스'를 개통하였다.

③ 기숙사(생활관)

본교 기숙사(생활관)는 중앙대학교 특유의 대학문화를 창조하는 학풍의 산실로서 학문 연구의 연장을 도모하며, 나아가 주거 공간으로서 공동생활의 안식처가 되고 있다. 제1캠퍼스의 경우, 독립된 건물의 현대식 남녀 학생기숙사를 보유한 가운데 각각

1백 50여 명의 학생을 수용하고 있으며, '95년에 완성된 여학생 기숙사는 원통형의 아름다운 외관에 초현대식 시설을 갖추고 있어 여학생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 제2캠퍼스에는 2천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생활관이 있으며, 각 호실마다 외국어 공부를 충실히 할 수 있는 앰프 시설과 각종 복지시설이 완비되어 있고 체육활동, 특별강연회 등 자치활동을 하고 있다. 안성캠퍼스의 생활관은 수용인원 면에서 국내 대학 중 최대 규모이며, 현재 1천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생활관을 신축할 계획이어서 공사가 완료되면 제2캠퍼스 재학생의 절반 가량이 생활관 혜택을 받게 된다.

④ 부설연구소

대학의 핵심 기능인 연구의 수행을 관장하고 지원하는 연구지원처 산하에는 인문과학연구소, 교육문제연구소, 법학연구소, 경제연구소, 경영연구소, 사회과학연구소, 예술연구소, 기술과학연구소, 가정문화연구소, 의과학연구소, 약학연구소, 기초과학연구소, 동북아연구소, 국가정책연구소, 일본연구소, 중앙음악연구소, 스포츠과학연구소, 한국민속학연구소, 국제여성연구소, 식량자원연구소, 환경과학연구소, 제3세계연구소, 유전공학연구소, 호주학연구소, 산업경영연구소, 건설산업기술연구소, 생산공학연구소, 광고홍보연구소, 국제무역연구소, 산업디자인연구소 등이 있다.

3. 특 성

중앙대학교의 교육특성은 뿌리 깊은 전통과 건전한 학풍의 명문 민족사학으로서, 12만여 명의 동문 졸업생이 사회 각계와 지구

촌 곳곳에서 중견 전문인으로 활약하고 있다. 본교는 유서 깊은 서울 흑석동 제1캠퍼스와 전원도시 안성 60만 평 대지 위에 세워진 최첨단 캠퍼스 타운의 균형 발전을 추구하고 있으며, 쾌적한 면학 환경과 첨단 교육시설 및 교육기자재를 보유하고 있다. 최근 3년간 200여 명의 세계적인 석학을 대거 초빙하여 연구 및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으며, 국내 최고 수준의 장학금을 지급(매년 9천여 명의 재학생에게 교내·외 장학금 총 55억 원 지급)하고 있다. 교육과정에 외국어 교육과 컴퓨터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게 하여 국제화·세계화 추세에 부응하고 있으며, 대학 장·단기 발전계획에 의한 학문의 국제화, 대학의 선진화 추구로 세계 수준의 대학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중앙대학교는 복수전공의 대폭 확대로 1, 2캠퍼스간 구분 없이, 수학기간의 연장 없이 4년 동안 학생이 원하는 학문을 2개까지 전공할 수 있다. 또한 전과 기회의 전면 개방으로 입학 후에도 학생의 학업적성과 학습능력에 맞고 자신이 희망하는 학과로 전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본교는 교육과정의 전면 개편으로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교양교육을 대폭 확대하고 새로운 전공학문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우수한 전문인력 양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컴퓨터 교육과 영어회화 교육을 특성화함으로써 21세기의 국제인력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4. 21세기를 준비하는 발전계획

21세기를 맞이하는 대학들은 나름대로의

개별적 독특성을 신장하여 자아분화를 이룩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오늘의 한국 대학들은 모두가 획일적으로 통합되어 있는 데서 정체감을 상실하고 있는 바, 이러한 획일성으로는 앞으로 맞게 될 시장경제의 원리가 보편화되는 대학간 경쟁에서 전지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자아분화적 특성화는 수많은 학문분야 중에서도 투자 우선 순위를 어느 분야에 두느냐로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미래의 대학은 결코 '모든 것에 부실한 대학'이기보다는 '어느 하나를 제대로 해내는 대학'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을 것임을 우리 모두가 냉철히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중앙대학교는 '민족·민주·선진대학과 신대학문화 창조'라는 대학운영과 발전의 4대 지표를 설정하고 우리나라 대학 최초의 '중앙대학교 장·단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의 실천을 앞당기기 위하여 전 중앙인이 '범중앙총력선진화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또한 중앙대학교 교육헌장을 대학 최초로 제정하기도 하였다. 그 결과 '95년 10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실시한 대학종합평가에서 평가인정을 받았다. 이에 대해 주요 일간지에서는 중앙대학교를 '체계적인 장·단기 발전계획을 세워 구성원 전체가 노력하는 미래지향 대학'으로 평가하기도 하였다.

한편, 본교는 국제화시대에 대비하고 국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9개 대학을 선정, 국제대학원으로 지원하는 '국제대학원'을 설립하였다. 중앙대학교는



▲ 중앙대는 체계적인 장·단기 발전계획을 세워 구성원 전체가 노력하는 미래지향적 대학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제대학원' 신설을 통해 정부부문 및 민간 부문별 다자간 쌍무적 통상 협상 전문인력을 공급하고, 해외투자·생산·판매·기술습득 등 현지 최고경영자 및 중견관리자를 양성하며, 교책연구소인 민족발전연구원의 활성화를 기하고, 외국인 중견관리자와 한국 기업의 해외 중견관리자의 체계적 양성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 외에도 중앙대학교는 의식의 전환, 제도의 개혁, 재정의 확충, 교육환경의 확장, 세계화의 추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세계 속에 우뚝 선 민족·민주·선진 대학 건설을 위하여 오늘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